

보도시점 2025. 9. 11.(목) 10:00 / 배포 2025. 9. 11.(목) 08:30

공정위,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

- 9개국 소비자정책당국·단체 등이 참석하여
AI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11일(목)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개최한다.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비자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소비자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공정위가 주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총 9개국 소비자정책당국 및 소비자단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관계자와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① ‘각국의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 ②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 보호’, ③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별 포럼 참석 기관·단체 현황

국가명	기관·단체명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고충센터(National Consumer Complaints Centre, NCCC)
몽골	반독점청(Anti-Monopoly Agency of Mongolia, AMA)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mmission, VCC)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CASE)
캄보디아	소비자보호경쟁사기행위단속총국 (Consumer Protection Competition and Fraud Repression Directorate General, CCF)
태국	소비자보호청(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Thailand, OCPB)
홍콩	소비자위원회(Hong Kong Consumer Council, HKCC)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한국소비자원(Korea Consumer Agency, KCA)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 중심의 신기술로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당국·단체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경제 시대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소비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세부 프로그램

<붙임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405)
		담당자	사무관	김진원 (044-200-4407)



시 간	내 용
09:50~10:00('10)	참가자 등록
	행사 개회
10:00~10:20('20)	▪ 개회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기조연설 (한국소비자원 원장) ▪ 축사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10:20~10:30('10)	무대 단상 정리 및 세팅
10:30~11:55('85)	(세션1) 국가별 최신 소비자 정책 동향 및 이슈 ▪ 좌장 : 정보름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표자 - Virakoudom PENN 과장 (캄보디아 소비자보호경쟁사기행위단속총국) - Naoya NISHIMURA 사무관 (일본 소비자청) - Saral James MANIAM 차장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고충센터) - Phan The THANG 사무관 (베트남 경쟁위원회) - 양동훈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11:55~13:15('80)	휴식 및 공식 오찬
13:15~14:55('100)	(세션2)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 보호 ▪ 좌장 : 김현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Michael Kin Hang KAN 과장 (홍콩 소비자위원회) - Saral James MANIAM 차장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고충센터) - Lkham ERDENE-OCHIR 조사관 (몽골 반독점청) - Wimonrat Rukkhaworakul TERIYAPIROM 과장 (태국 소비자보호청)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이진숙 국장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14:55~15:10('15)	휴식
15:10~16:45('85)	(세션3)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 좌장 : 김민기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 발표자 - Dexter Hai Hong TAY 이사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 Wimonrat Rukkhaworakul TERIYAPIROM 과장 (태국 소비자보호청) - Arnau IZAGUERRI VILA 법무사무관 (유엔무역개발회의) - 이정수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황미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16:45~16:50('5)	폐회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10차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와 주신
각국의 소비자정책·보호 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포럼을 찾아 주신
소비자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 중심의
신기술 환경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며
소비 환경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AI를 악용한 사기, 딥페이크, 스푸핑 등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에도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첫째, 국가별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과 과제를 공유하며
각국의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겠습니다.

둘째,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각국의 전자상거래 분쟁 현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수반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 및 각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국의 귀중한 법 집행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AI 기반 경제의 높은 파고에서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킬
튼튼한 방파제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포럼이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 협력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각 세션의 발표자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